

電算要員들의 勞苦

그것이 하나의 단위업무이든 전세계가 필적 떨만한 대 사건이든 간에 모든 일에는 드러나 보이는 면과 드러나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할 때 드러나 보이는 면에만 관심을 가지며 거기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나머지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소홀히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도 된다. 마치 2차세계대전이 歐洲지역에서는 처칠이나 아이젠하워, 또는 알렉산더나 몽고메리가 싸워 승리했으며 太平洋전쟁하면 맥아더장군만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하나의 작전과 전투에 참여했던 수백만의 병사들은 망각되기 쉬운 것과도 같이 말이다.

電子計算機라는 괴물(?)이 세상에 선보인지 이제 40여년. 처음에는 특수분야에서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만 사용되는 단순한 사무처리용 도구라고 생각되었으나 이제와서는 이것이 끼이지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약방에 감초격이 돼가고 있다. 하기에 이 괴물이 해내는 일처리의 능력이나 재간으로 보아서는 끼어줄만도 하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따리로 안겨주고 복잡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쳐 새로운 情報로 정리토록 해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눈깜짝 할 사이에 정연하게 처리해낸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편의와 정신적인 풍요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절감

박준봉
증권전산운용부장



을 가져와 이윤극대화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던 부분까지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자계산기도 하나의 조직화된 기계일 뿐이며 결국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전자계산기에 관련된 여러분야에 각각의 전문요원들이 종사하게된다.

우리는 흔히 전자계산기가 해내는 놀라운 효과에만 눈길을 돌리고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요원들의 숨은 勞苦에 대한 중요성에는 무관심하기가 십상이다. 특히 전자계산기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공휴일을 반납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요원들의 존재를 기억하여야한다. 이를 망각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